

EBS·평가원 - 유교 제시문 분석 [문제편]

| * | 선지 | 철학자 |
|----|--|-----|
| 1 | 죄가 없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죽이는 것은 인이 아닙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 취하는 것은 의가 아닙니다. | |
| 2 | 선을 행할 수도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이치가 이미 반이 섞여 있다면 그 죄는 마땅히 반감되어야 할 듯하지만, 죄를 지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성이 선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 |
| 3 | 마음의 발함은 터럭 끝을 살피기 어려운 것처럼 미미하고, 구덩이를 밟는 것처럼 위태로우니 진실로 경으로 일관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 기미를 바르게 하여 용(用)에 통달하게 하겠는가? | |
| 4 | 군자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야 한다. 명분이 바르지 못하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악(禮樂)이 일어나지 못하고, 예악이 일어나지 못하면 형벌이 알맞지 못하고, 형벌이 알맞지 못하면 백성은 손발을 둘 곳이 없게 된다. | |
| 5 | 고자는 인성은 인의를 좋아하지 않아 외적으로 인의를 강요받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틀렸다. 그렇다고 해서 성이 천리라면 어찌 마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는가. | |
| 6 |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이다. 정치를 비유하면, 북극성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뭇별들이 그를 향하는 것과 같다. | |
| 7 | 하늘의 운행은 일정하니 그것에 잘 대응하면 길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흉하게 된다. 근본에 힘쓰고 쓰임을 아끼면 천하가 가난할 수 없고, 몸을 잘 기르고 때에 맞춰 움직이면 천하가 병들 수 없으니, 가뭄이 굶주리게 할 수 없고 더위와 추위가 병들게 할 수 없다. | |
| 8 | 어질고(仁) 지혜로워(智) 가려지지 않으면 선왕(先王)과 같다. 자녀가 부모에게, 아우가 형에게 양보하는 것은 모두 성(性)에 반(反)한다. | |
| 9 | 어찌 인의예지라는 네 개의 알맹이가 주렁주렁 매달려 마치 사람 마음속에 북송아씨와 살구씨가 숨어 있는 듯하겠는가... 자신을 이겨 예를 회복할 때 어찌 사람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 |
| 10 | 장관이 그 밑의 관리들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만두게 하겠습니다.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
| 11 | A 사상은 물(物)과 이(理)를 둘로 나누고, 안과 밖을 둘로 가리며, 중요하지 않은 것을 먼저 하고 근본은 뒤로 하며, 마음의 문제를 모두 불교에 맡겨 버리고 '마음'이라는 말을 꺼리니 그 이유는 법칙이 물에 있다고 생각하여 사사물물에서 이를 구하기 때문이다. | |
| 12 | 맹자는 불선(不善)을 함닉(陷溺)에 돌렸는데 성리학자는 기질(氣質)에 돌렸다. 함닉은 자신에게서 말미암는 것이라 그것을 건지는 방법이 있지만 기질은 선천적인 것으로서 벗어날 길이 없다. 하늘의 부여가 균등치 않아 맑고 아름다운 기질을 주어 선한 요순(堯舜)이 되게 하고, 악하고 탁한 기질을 주어 악한 걸주(桀紂)가 되게 하더니 하늘이 불공평하기가 이 지경이겠는가. 그렇다면 요순은 저절로 선하니 우려를 바가 없고, 걸주는 저절로 악하니 경계할 바가 없다. | |
| 13 | 태극(太極)에 동정(動靜)이 있다고 함은 태극이 스스로 동정함이요, 천명(天命)의 유행은 천명이 스스로 유행함이다. 이(理)와 기(氣)가 합하여 사물이 되는 그 신묘한 작용도 이것이니, 천명이 유행하는 곳에 또한 별도로 시키는 것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
| 14 | 인의예지를 본심의 온전한 덕이라고 알면 다만 벽을 향하여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면을 비추어서 마음의 본체를 허명하고 통철하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마치 마음 안에 인의예지의 네 알이 있는 것처럼 여긴다면 어찌 성인들이 힘쓰던 바가 있었겠는가. | |
| 15 | 귀나 눈 같은 감각 기관은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 사물에 가리게 된다. 귀나 눈으로만 사물을 접하게 되면 사물에 끌려가게 될 뿐이다. 마음은 생각을 한다. 생각하면 얻을 수 있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마음은 하늘이 나에게 부여해 준 것이니, 큰 것(大體)을 먼저 세우면 작은 것(小體)이 빼앗지 못한다. | |
| 16 | 시작을 공경하고 마지막을 삼가서 시작과 마지막을 한결같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군자의 도리이며 예의의 형식이다. 삶을 후대하면서 죽음을 박대하는 것은 지각이 있는 것만을 공경하고 지각이 없는 것은 소홀히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간사한 사람의 방법이며 사리에 어긋나는 마음씨이다. | |

EBS·평가원 - 유교 제시문 분석 [문제편]

| | | |
|----|---|--|
| 17 | 수양에 있어서 정제(整齊)와 엄숙(嚴肅)이 중요하다. 남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도 스스로 근엄하게 경계하고 조금의 방일함 없이 수양을 지속하면, 저절로 성성(惺惺)하게 되고, 저절로 마음속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된다. | |
| 18 | 위태로운 나라에 가서 벼슬하지 않으며 어지러운 나라에는 살지 않는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벼슬하고 도가 없으면 은거한다. 나라에 도가 있을 때 빈천하면 부끄러운 일이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 부귀를 누려도 부끄러운 일이다. | |
| 19 | 인(仁)을 해치는 자를 적(賊)이라고 하고 의(義)를 해치는 자를 잔(殘)이라고 한다. 이렇게 잔악하고 도적질하는 사람을 일개 지아비(一夫)라고 한다. 일개 지아비인 주(紂)를 죽였다는 말은 들었어도 임금을 죽였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 |
| 20 | 순을 시켜서 제사를 맡아보게 하였더니 모든 신(神)이 받으시니 그것이 하늘이 받아들인 것이며, 그를 시켜서 나랏일을 보게 했더니 백성이 따르니 그것은 백성이 받아들인 것이다. | |
| 21 |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정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다름이 없습니다. 궁궐 주방에 살찐 고기가 있고 마구간엔 살찐 말들이 있는데, 백성들은 굶주린 기색이 역력하고 들판엔 굶어 죽은 시체가 널려 있다면 이는 짐승들을 몰아서 사람을 잡아먹는 셈입니다. 짐승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것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 |
| 22 | 제철의 것을 먹게 하고 예(禮)에 맞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면 재물을 다 쓸 수 없을 것이다. 성인이 백성들의 즐거움을 함께 즐기고 백성들의 근심을 함께 근심하면서 천하를 다스리면 백성들이 곡식을 가지고 있기를 물과 불이 넉넉한 것과 같다. | |
| 23 | 하늘은 춘하추동의 변화를, 땅은 재원(財源)을 사람은 사물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과 땅과 사람은 각각 자기의 직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 |
| 24 | 일벌은 여왕벌을 호위하지만 이를 충(忠)이라고 하지 않고, 호랑이가 약한 동물을 잡아먹더라도 악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동물의 행위는 본능에 따라서만 움직이기 때문이다. | |
| 25 | 길흉화복은 천의 일이 아니며, 덕은 선(善)을 쌓는 데 있다. 군자가 인의를 행하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 |
| 26 | 측은히 여기는 것으로 말하면 인(仁)이라 하고, 마땅함을 얻는 것으로 말하면 의(義)라고 하며, 상황에 맞는 것(條理)으로 말하면 이(理)라 한다. | |
| 27 | 통치자는 백성이 적은 것을 근심할 것이 아니라 분배가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 하며, 재정이 궁핍한 것을 염려하지 말고 나라가 평안하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 |
| 28 | 이(理)와 의(義)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구운 고기가 우리의 입을 기쁘게 하는 것과 같다. | |
| 29 | 인(仁)은 사람의 마음이고, 의(義)는 사람의 길이다. 학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 방치된 마음을 구하는 것뿐이다. | |
| 30 | 만약 사단의 이면(裏面)에 인의예지가 잠복해서 주인이 된다면, 이것은 맹자의 확충 공부(克己復禮)가 그 근본을 버리고 그 끝을 잡는 격이 될 것이다. | |
| 31 | 눈이 색(色)을 좋아하고 육체가 편안함을 좋아하는 일 등은 사람의 성정(性情)에서 나오니, 저절로 그러한 것이다. | |
| 32 | 기를 벗어나 성을 말할 수 없다. 선(善)은 저울의 중심이 물건에 따라 바뀌듯이 미리 정할 수 없다. | |
| 33 | 하늘의 직무(職務)는 작위(僞)를 가하지 않고도 이루어지고, 추구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것이다. 사람은 하늘에 대해 생각을 더하거나 능력을 보태려 하지 않아야 한다. | |
| 34 | 성(誠)은 하늘의 진실한 이(理)요 마음의 본체이다. 경(敬)으로 주재하여 본심을 가리고 있는 사사로움과 사특함을 제거하면 본체가 온전해진다. 경은 공부하는 요령이며 성은 공부를 통해 도달해야 할 경지이니, 경으로써 성에 이를 수 있다. | |
| 35 | 성(誠)은 하늘의 길(天道)이요, 경(敬)은 사람의 길(人道)이다. 무릇 마음은 한결같이 몸을 주재하고, 경은 한결같이 마음을 주재해야 한다. 스스로 노력하여 성으로 나아가려면 어찌 다른 것이 있겠는가. 역시 오직 경에 힘쓸 뿐이다. | |